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2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22)	봉헌 (215)	성체 (166)	파견 (29)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26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성인복사
7/3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7/10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7/17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7/24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이 조앤.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6/19	\$316	\$100	\$250

축하합니다.

2016 년도 한인 공동체 장학금 수여자는 Benjamin Ho (허 벤자민) 입니다. 벤자민군은 우리 성당 복사자로 오랫동안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12 학년 GPA 가 4.5 가 되는 우수한 학생으로써, 장래에 의로기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으로 오는 9 월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벤자민군의 앞날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그동안의 봉사에 감사를 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요셉 형제님 과 이영자 자매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길

윤 건 마르코 | 가수

어린시절 우연히 비틀즈의 음악을 접하고 그들의 음악에 푹 빠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뮤지션 이외의 다른 직업은 생각해보지 않았었던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다행히 꿈을 이루었고, 늘 꿈꾸던 "뮤지션: 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하면서 살수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저는 제 일에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무기력하게 하루 하루를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일을 계속해도 되는것일까?"
 "음악이 정말 나의 길일까?"

이런 수많은 고민으로 인해 뒤따라오던 방황의 시간들..... 돌이켜보면 일상의 사소한일을 하면서도 다른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써야만하고, 끝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무게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든 시간이었었던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팬이 보내준 팬 레터는 저의 방황과 고민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게 해 주었습니다. 팬 레터는 한 가수 지망생에게서 온것 이었습니다. 그 녀는 어린 나이에 집인의 실질적인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에서도 결코 가수라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을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노래를 들으면서 큰힘을 얻었고, 결국 어느 기획사의 가수 오디션에 합격하여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가 나의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7/7/16(목) 오후 6시 30 분

7 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7 월 7 일(목), '저녁 6 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체안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기도 나누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협 임원회의: 7/10 (일) 오후 7 시

7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7 월 10 일(주일) 저녁 7 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봉사를 해 주신 김 헬레나, 전임 총구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임원 맡아주신, 김 유스티나 자매님, 그리고, 계속해서 수고해주시는 이 요한 형제님과, 이 그레이스, 이 마틸다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들이, 주님의 Calling 에 성심껏 봉사 할수 있도록, 형제, 자매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 : 감사 드립니다

지난 주일 미사후에 친교실에서 Father's Day Celebration 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상차림을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 특히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랜드 오픈닝 - RODEO 옷 가게

다니엘 한 형제님께서 Planz 와 H street 만나는 곳에 대형 옷 가게를 오픈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님의 많은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801 Planz Rd., Bakersfield, CA 93304

Phone : 661-397-7878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또한 누군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으며 이 길을 걸어 왔던것 같습니다. 음악이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힘이 있는것 같습니다..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안에서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언 누군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성인의 통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올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통공이란 세상에 살고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수있게 결합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

통공의 신비는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 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용서 받을수있게하고, 또 천국에있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우리도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